

Roger DURAND : *Henry Dunant 1828-1910*

Traduction dirigée par Eun-Bum CHOE

Séoul, décembre 2011, 112 pages


Edition par l'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cademy et la Croix-Rouge de Corée

Collection *Henry Dunant*, n° 32, ISBN 978-89-91546-23-3

안리 뒤낭보다 더 기구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그는 솔페리노 전투(1859년 6월 24일)의 참상을 보고 나서 자신의 목격담을 토대로 『솔페리노의 회상』을 발표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훗날 적십자와 제네바협약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그는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누렸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1867년 파산의 대가로 빚더미에 올라앉으며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다. 한때 황제와 장관들로부터 귀빈대접을 받았던 그는 배고픔에 굶주리고 누더기 옷을 입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빈곤에 허덕일지언정 대의명분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뒤낭은 전쟁포로의 보호, '세계도서관' 사업, 여성의 권리, 국제적인 중재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활약을 펼쳤다. 몇 년간의 비참한 떠돌이 생활 끝에 그는 재기에 안간힘을 썼고 마침내 1901년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1910년 10월 30일 하이덴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 전기의 목적은 위대한 사회사업가 뒤낭의 중요한 면모인 원대한 비전, 열정과 관대함을 소개하고 동시에 피해망상증을 비롯한 그의 허물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 전 인류의 긍지를 드높인 뒤낭의 발상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제네바 태생의 역사학자 로저 뒤랑은 1975년 6월 24일 안리뒤낭협회를 창립한 후 35년 동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뒤낭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기욤 뒤푸르, 엘리 뒤코밍, 귀스타브 아도르 같은 인도주의 활동의 대표적 인물들에 대한 중요한 책을 집필했다.

대한적십자사 

Cette biographie est vendue avec celle de *Gustave Moynier, 1826-1910* par François BUGNION.

Le set de ces deux volumes coûte 19.– francs ou 15.– francs pour les membres de *Genève humanitaire* et de la *Société Henry Dunant*.